

어머니의 영유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와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황영희¹, 박선정^{2*}

¹울산대학교 간호학과, ²여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Toddler -Focusing on Infant-Toddler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Young-Hui Hwang¹, Sun-Jung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Uls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 215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그리고 애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집단간 평균비교,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3.200, p<.002$), 연령($t=4.037, p<.001$)과 기질($F=4.614, p<.011$)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 중 연령($F=18.028, p<.001$)과 학력($F=4.241, p<.016$)에 따라 애착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애착은 사회적 지지($r=.507, p<.001$) 및 모아상호작용($r=.57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beta=.361, p<.001$), 사회적 지지($\beta=.309, p<.001$), 연령(30세미만)($\beta=-.370, p<.001$) 그리고 결혼 기간(10년 미만)($\beta=-.179, p<.033$)이었다. 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fant-toddler and mother,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on mother-child attachment. A descriptive study was implemented, and data were gathered from March 1 to September 30, 2016. The subjects were 215 mothers whose children were in infancy or toddle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mother-child interaction and attachment. SPSS 24.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tergroup comparisons of average score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attachment scores according to gender ($t=3.200, p<.002$), age ($t=4.037, p<.001$) and temperament ($F=4.614, p<.011$) were observe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toddlers, as well as according to age ($F=18.028, p<.001$) and academic credentials ($F=4.241, p<.016$)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 Attachment was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r=.507, p<.001$) and with mother-child interaction ($r=.571, p<.001$). The factors that affected attachment were mother-child interaction ($\beta=.361, p<.001$), social support ($\beta=.309, p<.001$), age (under the age of 30)($\beta=-.370, p<.001$) and marriage duration (less than 10 years)($\beta=-.179, p<.033$).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eraction programs that bolster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that exert a crucial influence on attachment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 Attachment, Infancy-toddler, Mother, Social Support, Mother-Child Interaction

*Corresponding Author : Sun-Jung Park(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Tel: +82-31-880-5519 email: bun8973@naver.com

Received March 16, 2018

Revised (1st April 12, 2018, 2nd May 23,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애착(attachment)이란 강렬한 정서적 유대관계이며 애정적 결속으로, 인간의 발달단계 중 영유아 시기는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이 시기에는 영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변함없이 반응을 보이는 대상인 주 양육자가 애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안정적인 애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2].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의 질이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와 영유아 자녀의 애착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이 있다. 주 양육자의 특성인 양육자의 양육행동, 성격, 애착유형, 민감성,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경험 등이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혹은 정보적 도움, 신체적 안락 그리고 문제해결 도움 등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4], 애착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주 양육자의 특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양육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5].

이전에는 애착을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결속 같은 일 방향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나. 지금은 영유아는 부모에게 애착되고, 부모는 영유아에게 애착하는 상호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6]. 이에 따라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아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모아상호작용은 모아관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역동적 상호조절과정이다[7]. 모아상호작용은 아동이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모아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은 모아간의 애착과 영아의 수면양상,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에 대한 소중함과 양육자의 기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8].

애착과 관련된 연구로는 어머니 애착척도 개발[9], 애착안정성과 영아발달의 관련성[10], 교사와의 애착관계[11],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변인에 관한 연구[3] 등이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 및 모아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유아와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애착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5], 애착과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양육환경까지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아애착과 모아상호작용을 주 양육자의 개인적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 체계의 역동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모아애착과 모아상호작용에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요인을 함께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아애착과 모아상호작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2)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그리고 애착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 3)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그리고 애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4)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

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로 일반적 질환이나 신체적 기형이 없는 자, 다문화가정 아닌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성,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program (v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3개의 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므로 유의수준 (α)=.05, 독립변수 13개,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15, 검정력(power)=0.95로 했을 때, 필요한 표본의 수가 194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를 수락하고 자료수집에 응한 대상자는 총 219명이며 불확실한 답을 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215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1.3 연구 도구

2.1.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Park[12]이 개발한 척도로 정서적(6문항), 정보적(5문항), 물질적(4문항) 그리고 평가적(1문항) 지지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1.3.2 모아상호작용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Barnard[13]의 Nursing Child Assessment 도구 중 출생에서 3세까지의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Teaching Scale을 참조하여 Im[14]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1.3.3 애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Hwang과 Jung[9]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적 어머니 애착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정서(6문항), 자기희생적 온정(4문항), 냉담반응(3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 한다. 총점을 구할 때, ‘냉담’요인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Hwang과 Jung[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1.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5개 어린이집, 소아과 등의 기관에 공문을 통한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어린이집, 소아과에 내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 또는 담당교사가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설문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 요청에 응한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219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불확실한 답을 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2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영유아 특성, 어머니 특성, 생태학적 특성, 모아상호작용과 애착을 조사하였다. 영유아 특성으로 영유아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와 기질을, 어머니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과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생태학적 특성으로 가족 종류, 월수입, 결혼 기간, 자녀수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다.

2.1.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영유아 특성, 어머니 특성 그리고 생태학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영유아 특성은 성별은 남자가 105명(48.8%), 여아가 110명(51.2%)이었고, 206명(95.8%)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기질은 171명(79.5%)이 순하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은 30세 이상이 148명(68.8%)명, 대졸 이상이 164명(76.3%),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96명(44.7%)이었다. 생태학적 특성으로 핵가족이 204명(94.9%), 월수입은 300미상이 145명(67.4%),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인 149명(69.3%) 그리고 자녀수는 2명이하가 203명(91.6%)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5점, 모아상호작용은 평균 3.73점, 애착은 4.22점이었다(Table 1).

2.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과 애착

연구 결과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2.515$, $p<.013$)과 연령($t=3.142$, $p<.002$)이, 어머니의 특성은 연령($F=8.576$, $p<.001$)이, 생태학적 특성으로 자녀 수($F=4.479$, $p<.011$)에 따라 사회적 지지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가 여아일 때보다, 연령이 12개월 미만인 12개월 이상보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30대에서 40대 미만인 집단이 30대 미만인 집단보다,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가 1명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건강과 기질, 양육자의 학력과 직업유무 그리고 가족형태, 월수입, 결혼 기간에 따라 사회적 지지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3.200$, $p<.002$), 연령($t=4.037$, $p<.001$), 건강상태($F=3.156$, $p<.045$)와 기질($F=4.614$, $p<.011$)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 중 연령($F=18.028$, $p<.001$)과 학력($F=4.241$, $p<.016$)에 따라 모아상호작용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가 여아일 때보다, 연령이 12개월 미만인 12개월 이상보다,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매우 좋은 경우

보다 그리고 기질이 보통이 경우가 까다로운 경우보다 모아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이 30대에서 40대 미만인 집단이 30대 미만인 집단보다, 고졸이 전문대졸보다 모아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특성 중 성별($t=2.868$, $p<.005$), 연령($t=2.933$, $p<.004$)과 기질($F=7.002$, $p<.001$)이, 양육자의 특성은 양육자의 연령($F=17.964$, $p<.001$)과 학력($F=3.913$, $p<.021$)에 따라 애착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Children's characteristics		
Children' gender	Male	105(48.8)
	Female	110(51.2)
Children' age (month)	≤ 12	127(59.1)
	>12	88(40.9)
Children' health	Very good	103(47.9)
	Good	103(47.9)
	Moderate	9(4.2)
Children' temperament	Good	59(27.4)
	Moderate	112(52.1)
	Fastidious	44(20.5)
Mothers' characteristics		
Age(year)	≤ 30	67(31.2)
	31 ~ 35	71(33.0)
	36 ~ 40	56(26.0)
	≥ 36	21(9.8)
Education	High school	51(23.7)
	College	88(40.9)
	above University	76(35.3)
Job	None	119(55.3)
	Have	96(44.7)
Ec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type	Nuclear family	204(94.9)
	Etc.	11(5.1)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17(7.9)
	201 ~ 300	53(24.7)
	301 ~ 400	62(28.8)
	401 ~ 500	51(23.7)
	≥ 501	32(14.9)
Marriage duration (year)	1 ~ 5	51(23.7)
	6 ~ 10	98(45.6)
	11 ~ 15	55(25.6)
	≥ 16	11(5.1)
Children number (person)	1	79(34.0)
	2	124(57.7)
	≥ 3	18(8.4)
Social support		3.55±0.71
Mother-toddler interaction		3.73±0.76
Attachment		4.22±0.80

Table 2.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ttachment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Infants-toddlers' characteristics								
Children' gender	Male	3.68±0.69	2.515	3.90±0.72	3.200	4.38±0.73	2.868	
	Female	3.44±0.71	(.013)*	3.57±0.76	(.002)*	4.10±0.82	(.005)*	
Children' age (month)	≤12	3.68±0.71	3.142	3.90±0.72	4.037	4.35±0.78	2.933	
	>12	3.38±0.67	(.002)*	3.49±0.74	(<.001)*	4.03±0.79	(.004)*	
Children health	Very good ^a	3.50±0.65	0.696 (.500)	3.68±0.76	3.156	4.15±0.78	1.454 (.236)	
	Good ^b	3.61±0.74		(.045)*	4.27±0.80			
	Moderate ^c	3.56±0.88		a<c	4.56±1.01			
Children' temperament	Good ^a	3.56±0.65	1.243 (.291)	3.76±.73	4.614	4.39±0.70	7.002	
	Moderate ^b	3.61±0.71		(.011)*	4.29±0.76	(.001)*		
	Fastidious ^c	3.41±0.76		b>c	3.84±0.91	a,b>c		
Mothers' characteristics								
Age(year)	≤30 ^a	3.22±0.55	8.576 (<.001)* a<b,c	3.24±0.65	18.028 (<.001)* a<b,c	3.70±0.76	17.964 (<.001)* a<b,c,d	
	31~35 ^b	3.69±0.69		3.97±0.72		4.42±0.73		
	36~40 ^c	3.79±0.68		4.02±0.70		4.57±0.57		
	≥41 ^d	3.52±0.93		3.71±0.56		4.29±0.90		
Education	High school ^a	3.59±0.78	0.265 (.768)	3.90±0.70	4.241	4.39±0.80	3.913	
	College ^b	3.51±0.68		(.016)*	4.05±0.83	(.021)*		
	above University ^c	3.57±0.70		a>b	4.32±0.73	a>b		
Job	None	3.55±0.66	0.167	3.66±0.77	1.436	4.23±0.74	-0.074	
	Have	3.56±0.77	(.867)	3.81±0.73	(.152)	4.22±0.87	(.942)	
Ec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type	Nuclear family	3.55±0.72	-0.398	3.73±0.76	-0.395	4.23±0.80	0.949	
	Etc.	3.64±0.50	(.691)	3.82±0.75	(.693)	4.00±0.77	(.344)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18±0.05	1.658 (.161)	3.47±0.62	1.502 (.203)	3.82±0.95	1.739 (.143)	
	201~300	3.68±0.08		3.83±0.70		4.33±0.71		
	301~400	3.56±0.07		3.84±0.68		4.31±0.80		
	401~500	3.55±0.67		3.69±0.88		4.22±0.78		
	≥501	3.53±0.76		3.56±0.80		4.09±0.86		
Marriage duration (year)	1~5	3.35±0.72	2.017 (.113)	3.55±0.78	2.091 (.102)	4.10±0.83	2.407 (.068)	
	6~10	3.58±0.69		3.73±0.70		4.15±0.79		
	11~15	3.67±0.70		3.82±0.84		4.38±0.73		
	≥16	3.64±0.81		4.09±0.54		4.64±0.92		
Children number (person)	1 ^a	3.36±0.63	4.479	3.58±0.73	2.465 (.087)	4.04±0.82	2.935 (.055)	
	2 ^b	3.66±0.71	(.012)*	3.80±0.74		4.32±0.75		
	≥3 ^c	3.61±0.85	a<b	3.89±0.90		4.28±0.96		

영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가 여아일 때보다, 연령이 12개월 미만이 12개월 이상보다, 기질이 보통인 경우와 매우 좋은 경우가 까다로운 경우보다 애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집단이 30대 미만인 집단보다, 고졸이 전문대졸보다 애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및 애착의 상관관계

애착은 사회적 지지($r=.507, p<.001$) 및 모아상호작용($r=.57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r=.49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for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N=215)

	Attachment	Social support	Mother-toddler interaction
Attachment	1	.507* <.001	.571* <.001
Social support		1	.499* <.001
Mother-toddler interaction			1

2.2.4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불연속 변수(영유아의 성별, 나이, 건강, 기질 및 어머니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족형태, 월수입, 결혼기간, 자녀수)는 가변수 처리한 후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과 함께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특성인 연령과 결혼기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애착(y)= $1.978+0.362*$ 모아상호작용 $+0.308*$ 사회적 지지 $-0.367*$ 연령(30세 미만) $-0.185*$ 결혼기간(10년 미만)이었다. 대상자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이 유의하고 ($F=40.601$, $p<.001$) Durbin- Waston test 결과는 1.750로 2 근처에 있어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회귀표준화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독립성을 확인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99이고 분산확대지수(VIF)는 1.01~1.51으로 10보다 낮았고, 상태지수의 가장 큰 값이 16.27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 본 모형의 설명력은 43.6%이었다.

2.3 논의

모아애착은 양방향의 정서적 결속이며,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므로[15],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연령, 결혼기간으로, 이 중에서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아상호작용이었다. 이전 연구[16]에서도 모아상호작용이 애착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모아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이 영아가 출생하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7], 출생 이후 모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아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의 문제를 잘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아애착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안정적인 모아애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아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사정이 필요하고,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중재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17]과 Lee와 Kwon[18]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인 경우 출근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렵고, 생후 초기 영아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것이 모아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 일지라도 모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19, 20]이 확인되었다. 이에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어머니와 다른 발달단계의 자녀 양육 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애착형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21,22]와 유사하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또는 정보적 도움, 문제해결 도움, 가치인정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있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와 영유아의 관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사회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achment

Predictors	β	t	p	R ²	adjusted R ²	F(p)
Constant	1.978	6.884	<.001			
Mother-toddler interaction	0.362	5.355	<.001	.326	.322	101.816(<.001)
Social support	0.308	4.504	<.001	.391	.385	68.098(<.001)
Age(<30 year)	-0.367	-3.643	<.001	.424	.416	51.715(<.001)
Marriage duration(<10 year)	-0.185	-2.201	.029	.436	.425	40.601(<.001)

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22], 모아애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본 Lee[2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모아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모아애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취업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을 줄이고자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취업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하기에는 사회적 지지가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취업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시스템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30]. 또한, Bea 와 Kim[24]의 연구에서 모아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배우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24], 모아애착관계에서 배우자의 역할 및 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지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결혼기간이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애착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5]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26]와는 차이가 있는 연구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에서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및 모아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및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에서 30세미만의 집단은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이며, 초산모인 경우가 많았다.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27], 본 연구대상자에서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초산모 집단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면서 모아상호작용이 낮고, 모아애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아이의 기질이 순하거나 보통인 경우가 까다로운 경우보다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화를 잘 내고 쉽게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 달래기가 힘들고, 영유아를 달래느라 지나

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양육자는 지치게 되어 까다롭고 극단적인 기질의 아동과 어머니는 부정적 애착을 하게 된다[28]. 반면에 아동이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자는 양육의 성공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애착이 나타날 수 있다[29].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양육 시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가 남아인 경우와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 모아상호작용, 애착은 서로 다른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23,25,27],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모아애착은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고, 영유아 자녀와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관련 연구결과들[8]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아애착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및 모아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형성하는 긍정적인 애착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애착은 단지 영유아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결혼기간, 사회적 지지 및 모아상호작용이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와 모아상호작용은 애착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었다. 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및 모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본 연구결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자의 특성인 연령, 결혼기간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모아상호작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영향요인들에 의한 애

착행위의 전체 설명력은 43.6%이었다.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성별, 연령, 기질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애착능력을 증진시키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 및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애착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돕고,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올바른 애착 행동을 이끌어주는데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모아애착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구조모형을 통한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지지 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배우자, 가족, 친구 및 정부 등으로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39, no. 35, pp. 350-373, 1958.
- [2] M. Ainsworth, M. Blehar, E. Waters, S. Wall.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y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pp. M1-417. New York: Psychology Press; 1978.
- [3] U. I. Park, "A developmental contextualism approach to young children's attachment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8, pp. 197-222, 1999.
- [4] M. H. Song, Y. S. Song, Y. J.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elf-Efficacy in Early Childhood Mother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2, no. 5, pp. 165-183, 2007.
- [5] S. K. Nam, J. H. Kim, "A research trend on carer variable of attachment study in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2, no. 1, pp. 131-149, 2015.
DOI: <http://dx.doi.org/G704-SER000009521.2015.22.1.001>
- [6] M. H. Klaus, J. H. Kennell, Parent-Infant bonding, pp. 1-326, Sain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81.
- [7] J. K. Whitt, P. H. Casey,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nd development: The effect of pediatric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vol. 53, no. 4, pp. 948-956, 1982.
DOI: <https://doi.org/10.2307/1129133>
- [8] M. H. Lim,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toddler interaction program and toddler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1, no. 2, pp. 67-94, 2011.
- [9] H. J. Hwang, Y. B. Jung,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3 no. 3, pp. 57-78, 2006.
- [10] M. R. Chung, J. Y. Kwon, S. K. Park, "The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and sensitivity of maternal behavior on the development of 12-month-infa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5, no. 6, pp. 335-352, 2011.
- [11] Y. S. Kim, N. R. Shin, "Effects of infant's attachment to mother and teacher on adaptation to child car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 no. 5, pp. 229-249, 2013.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3.9.5.229>
- [12]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13] K. E. Barnard, The nursing child satellite training series,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Seattle: NCAST, University of Washington; 1978.
- [14] S. B. Im, "An effect of the mother-child attachment promotion program for the child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0, no. 5, pp. 1133-1144, 2000.
DOI: <https://doi.org/10.4040/jkan.2000.30.5.1133>
- [15] M. D. Ainsworth, R. S. Marvin, "On the shaping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n interview with Mary D. S. Ainsworth.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60, pp. 3-21, 1995.
- [16] E. H. Lee, A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 of the primiparous coupl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5.
- [17] H. J. Yoon, A study of the effects of early contact on maternal infan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 [18] S. Y. Lee, I. S. Kwon,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2, pp. 231-239, 2006.
- [19] G. Kochanska,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 fearfulness, and emerging attachmen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4, no. 3, pp. 480-490, 1998.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34.3.480>
- [20] Y. S. Yang,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nd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2000.
- [21] H. C. Hong, H. J. Moon, "The influence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on maternal attachment in infancy: An examina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its mediating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8, no. 4, pp. 125-145, 2011.
- [22] J. H. Chai, Y. J. Park,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3, no. 4, pp. 101-120, 2016.
DOI: <https://doi.org/10.15284/kjhd.2016.23.4.101>

- [23] H. Y. Lee, M. G. Kwon,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infants in relation to mothers'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6, no. 1, pp. 329-344, 2007.
- [24] H. J. Bea, D. Y. Kim, "Father's childhood attachment, support of spo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athering practice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7, no. 4, pp. 147-164, 2015.
- [25] Y. H. Song, "Th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type, attachment behaviors of mother related variables, and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3, no. 1, pp. 81-93, 2011.
- [26] J. Y. Ahn, S. Y. Park,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0, no. 1, pp. 53-68, 2002.
- [27] H. S. Kim, K. S. Oh, Y. H. Shin, T. I. Kim, H. N. Yoo, M. K. Sim, K. H. Chung,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1, no. 3, pp. 290-300, 2005.
- [28] M. A. Brent, J. S. Sarah, R. R. Thomas,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 versus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4, pp. 9987-1011, 2002.
- [29] L. F. Halem, K. L. Brand, A. F. Malone,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low-birth weight(VLBW) and full-term infant; a function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 26, no. 2, pp. 93-104, 2001.
DOI: <https://doi.org/10.1093/jpepsy/26.2.93>
- [30] B. W. Cho, "Study on dependence of preschooler' emotional intelligence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verbal control styl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2, pp. 133-157, 2012.

박 선 정(Sun-Jung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 건강증진, 부모 양육행위

황 영 희(Young-Hui, Hw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1년 9월 ~ 2017년 1월 : 여주대학교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장기이식환자간호, 간호사 교육, 만성환자 간호